

NEWSLETTER 젠더와 건강

제2호 발행일: 2014년 7월 21일 | 편집위원: 고경심, 강나영, 박정은, 박주영, 문현아, 유현미, 윤정원, 이상윤, 이유림
발행처: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19-1 동원빌딩 206호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메일: chsc@chsc.or.kr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이 병원에 가기 두려운 이유

박주영(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병원과 의사에게 거부당하는 사람들

“손이 부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의사한테 10분 동안 내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들들 볶았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좌절했고 수치스러웠다.”

“목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골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억지로 시켰다.”

“나를 검사하는 동안 나를 보면서 다른 의료진을 부른다. 그리고는 내 성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2010년 미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이 털어놓은 의료기관에서의 차별사례를 읽어볼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 4,916명이 밝힌 바에 따르면, 동성애자(LGB) 중 약 8%, 트랜스젠더 및 젠더비순응자(gender non-conforming individuals) 중 약 27%, HIV감염인 중 약 20%가 노골적으로 진료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20% 넘는 이들이 의료인들이 자신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며, 의사들이 건강문제에 대해 환자 탓을 한다고 보고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성소수자가 아닌 이들과 비교할 때, 성소수자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연구는 또

한, 성소수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가 성소수자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의사들의 불필요한 질문과 차별적인 대우, 섹슈얼리티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의사를 찾고 의료기관을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성소수자 혹은 HIV감염인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을 때 이들에게는 경제적 접근성, 지리적 접근성 이외에도 사회적 접근성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벽이 생긴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

다른 의사를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응급상황인 경우, 병원을 찾기 힘든 시골지역일 때, 그리고 장기요양시설이 필요한 경우,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다시 미국의 사례를 보자. 39세의 한 교사는 911로 이송되었지만,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한 시간이 넘게 방치되었다가 코마(COMA)상태에 빠졌고 며칠 후 사망했다. 한 53세 남성은 신장이식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HIV양성이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보험적용을 거부당했고, 또 다른 HIV감염인은 HIV양성이라는 이유로 응급실 치료를 거부당한 적도 있다. 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주립 청소년 구급시설에서 처방된 호르몬의약품을 먹지 못해 심각한 건강문제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다. “신이 당신을 남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한 트랜스젠더의 유방확대수술을 거부한 병원과 의사가 있는가 하면, 2년 동안 요통치료를 해준 정형외과 의사가 척추 수술 1주일 전, 환자가 HIV양성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수술을 거부하고 취소한 사례도 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동성애자 중에서 게이라는 사실 때문에 상담자에게 상담을 거부당한 사례는 의료인도 아닌 상담 수습학생이 저지른 일이기도 하다.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에게 위와 같은 사건은 더욱 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힌다. 위 사례에서 나오듯, 목숨을 잃기도 하고 당장 필요한 시술이나 수술을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나를 인간으로 봐주는 의사를 찾는다”

설사 다른 의사나 병원을 찾아 나선다 해도, 추가로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저소득층이거나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이라면, 더 큰 짐을 지게 되는 것이다. 한 남성 HIV감염인은 요양소 6곳에서 입소를 거절당하고 집에서 8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입소해야 했고 가족들이 모두 입소가 가능한 요양소를 찾느라 매달려야 했다. 한 레즈비언은 1년간 침습적인 테스트와 치료를 통해 불임치료를 받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확정받을 즈음, 레즈비언이란 이유로 시술을 거부당했다. 그곳이 보험적용 가능한 유일한 진료소였는데, 시술을 거부당하자 힘들게 다른 곳을 알아봐 돈을 주고 불임치료를 받게 되었다. 결국 돈과 시간의 이중적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이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의 경험에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차별에 대한 두려움이다.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한 경험은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성소수자와 HIV감염인들은 보건의료 제공자를 불신하고 의료서비스

에서 멀어지게 된다.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던 경험이나 기억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 자체를 회피하거나 연기하고, 설사 의사와 만나게 되어도 치료에 필수적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게 된다. “치료해주고, 처방해주고, 나를 문제덩어리로 보기보다 인간으로 봐주는 의사를 찾는 거다. 의사나 큰 병원에서 너무 많이 거부를 당해서, …이제 난 내 성적 역사(gender history)에 대해서는 절대 알리지 않는다.” 는 트랜스젠더의 고백은 아프기만 하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우선 차별과 낙인을 없애야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다르지 않다. 지난 6월 7일 신촌 퀴어퍼레이드, 6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기독교보수세력의 행태를 보면, 미국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사회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미국과 같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나 통계는 한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와 인식을 알기도 힘들다. 이 와중에, 지난 6월 발표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 는 중요하게 언급할 만하다. 이 조사(온라인)에 참가한 응답자 3,159명 중 47%가 의료기관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일이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난다고 답했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응답자 중 67%가 병원에서의 차별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않거나 미룬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물론 의료기관과 의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교육 내에 성소수자와 HIV/AIDS에 관한 정보와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소수자, HIV감염인이 적절하게 진료받는 것이 의사 개인의 선의에 좌우되어

서는 안 될 일이며, 전체 의료기관/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환자를 만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기관의 정보/지식/태도를 바꾸는 것은 강조되어야 할 과제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해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선과제로 차별과 편견을 없애려는 법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차별과 낙인, 동성애 범죄화로 인해 성소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성소수자와 HIV감염인들이 기본적인 의료/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차별당한 경험을 전하면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들은 공통적으로 “충격을 받고 수치스러웠으며 굴욕적이고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불건강한 상태를 치료받고자 찾은 의료기관에서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낀 채 쫓겨나야 했던 이들이 당당하게 의료를 이용하기까지, 그리고 의사를 똑바로 대면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 혹은 비용이 들 것인지, 이런 건 아무도 계산하지 않는다. 결국은 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존재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처벌하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낙인과 차별 없이 살 권리를 부여하고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기 때문이며,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참고문헌

Lambda Legal, When Health Care Isn't Caring: Lambda Legal's Survey of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and People with HIV (New York: Lambda Legal, 2010).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www.lambdalegal.org/health-care-report

National Women's Law Center, Health Care Refusals Harm Patients: The Threat to LGBT People and Individuals Living with HIV/AIDS, May, 2014.

* 이 뉴스 보셨어요?

• 칠레, 제한적 낙태 합법화 허용 추진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칠레 대통령이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와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 바첼레트 대통령은 이 같은 제한적 낙태 허용은 공공보건 문제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서도 한동안 치료 목적의 낙태가 허용된 적이 있다며 더 이상 논의가 금기시되면 안된다고 강조

* 낙태 문제는 칠레에서 오랜 기간 사회적 논란이 되어 온 가운데, 낙태의 제한적 허용은 지난해 말 대선 당시 바첼레트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

- 칠레는 중남미에서도 대표적 보수 국가로 낙태가 불법이며, 수술을 하다 적발되면 산모에게는 최대 10년 의료진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

- 전문가들은 낙태 합법화 법안이 확정될 경우 칠레에서는 연평균 500~700명의 산모가 합법적으로 낙태수술을 할 것으로 전망 [Latina, 2014.05.28.] (뉴스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보건산업동향 제111호, 2014년 6월6일자)

• 스페인, GDP 산출시 성매매·마약 거래 포함

스페인 정부가 향후 GDP를 산정할 때 성매매, 마약, 밀수 등 지하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활동도 포함시키기로 결정

- 이는 EU집행위원회가 불법 거래도 엄연한 경제 활동이니만큼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다는 전제 아래 회원국이 GDP를 산출할 때 지하경제 항목도 포함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결정

- 스페인은 북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유럽

으로 마약과 마리화나가 흘러들어 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산출 방식이 변경되면 GDP가 대폭 증가할 전망

- 영국과 이탈리아는 이미 지난 5월 성매매와 마약 거래 액수를 GDP를 산정할 때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영국 통계청은 이 경우 영국 GDP가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이런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유럽의 지하경제 규모가 전체 GDP의 5분의 1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New York Times, 2014.06.17.](뉴스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제114호, 2014년 6월 27일자)

● 피임 보험 적용 논란...깊어지는 美대법원 내용

미국 대법원이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반대하는 결정으로 여성계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이와 비슷한 대법원의 명령에 여성 대법관 3명이 이례적으로 공개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4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ACA),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통한 임신조절 문제가 대법원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교의 자유냐, 여성의 권리냐'의 논쟁에서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자, 여성계가 일제히 반발하는 모양새로 사안이 흘러가고 있다. 미 대법원은 전날 기독교계인 일리노이주 휘턴 대학이 제출한 긴급요청에서, 대학이 피임약 보험적용에 대해 반대할 때, 정부가 요구하는 서식을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령했다.

대신 학교는 피임약 보험적용에 대한 반대를 정부에 서면으로만 알려주면 된다고 이 명령은 밝혔다. 말하자면 규제를 완화시켜준 것이다.

피임약에 대한 보험적용은 보험사에서 하지만, 이 대학은 근원적으로 이 조치가 비도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명령은 4개 문단에 불과하고 한시적인 것이었으나 파장이 컸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기업주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피임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했을 때 이에 반대했던 여성 대법관 3명이 결국 반대 목소리를 터뜨렸다.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팽팽히 대립했던 지난달 판결에서 여성이자 진보 성향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날 다른 두 여성대법관과 연명한 17쪽짜리 반대의견서에서 "이번 명령이 휘턴 대학 교직원과 학생 수백명이 피임약의 보험적용과 관련해 누려야 할 법적 권리를 빼앗아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휘턴 대학과 비슷한 다른 종교적 비영리기관들에도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이 약에 대해 반대하는 권한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미국 언론들은 법원의 잇따른 결정과 명령이 임신조절 비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던 오바마 행정부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결정에서 기업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피임 등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 고용주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을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로 본 것이다.

이 결정에 보수계와 기업은 환영했지만, 백악관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했고, 여성계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연합뉴스, 2014년 7월 5일자)

● 오바마, 동성애자 차별금지 행정명령에 종교계 반발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종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행정명령에 예외 요구...피임약 건강보험 논쟁 이어 '2라운드'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동

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종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지난달 영리기업의 피임약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한 차례 '타격'을 입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행정명령 발동을 놓고 또다시 종교단체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행정명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곧 서명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와 용역계약을 하는 민간기업이 성적 지향성이나 정체성을 이유로 피고용인을 업무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의 많은 주(州)가 이미 차별금지법을 통해 일터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이런 법이 없는 29개주로 보호 범위가 확장된다. 종교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에 반대하는 경우는 이 행정명령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예외조항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종교단체 지도자들은 지난 1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종교단체를 희생시키면서 특정 그룹에 대한 보호를 확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0개 이상의 단체와 종교계 지도자들이 보낸 지난달 25일자 서한도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명령은 큰 반대에 부딪치고 나라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성애자 옹호단체들은 이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시 나왔던 행정명령에서도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예외가 인정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영리기업의 기업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피임 등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결했을 때, 이는 종교계의 '승리'이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타격으로 해석됐다.

NYT는 종교계의 압박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딜레마에 처했다고 전했다. 그가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보수계가 들고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 반대라면 자신의 지지층에게 큰 실망감을 안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2014년 7월 10일자)

• **홈플러스노동조합, 경남진해지부 13일 출범**

"대기업 홈플러스에서 10년 일해도 월급 100만원 안돼!"

지난 9일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사측 사이에 2014년 임금협상 조정이 최종 결렬돼 11일부터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고 오는 13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 노조는 "노조측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회사 측은 2차 조정회의까지 단 10원의 안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8%인 월 148만원 생활임금 보장 ▲기본급 200%인 상여금을 400% 인상 지급 ▲중고등학교 자녀는 근속 15년부터, 대학생 자녀는 근속 20년 이상부터인 학자금 지급 기준 변경 ▲감정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노조는 "홈플러스 임원 4명의 연봉이 무려 100억입니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지난 5년간 임금이 동결 수준이다"며 "대기업 홈플러스에서 10년을 일해도 월급은 100만원도 안된다. 매출 10조의 대기업 홈플러스에 다니지만 월급은 10년이 넘어도 제자리 걸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진해점의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 연장근무다 뭐다 밤낮 가리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월급은 10년이 넘어도 제자리 걸음인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홈플러스노동조합으로 뭉쳤다"고 토로했다. 특히 노조는 "홈플러스 진해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힘차게 단결선언을 하고 자주적으로 펼쳐 일어난 것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회사 발전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동김해지부, 밀양지부에 이어 출범하는 진해지부의 출범을 6만 조합원과 함께 축하한다" 며 "우리는 홉플러스 여성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행진에 힘있게 함께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 출처: CNB NEWS, 2014년 7월 11일자)

* 이 논문 보셨어요?

• Yun, O., Kim, M., and Chung, SE., *The Sexuality Experience of Older Widows in Korea,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14, Vol. 24(4); 474 -483.*

일단 제목을 보고 혹할 만한 논문이다. 한국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실제' 사례가 거의 금기시되다보니, 이러한 논문을 찾기는 힘들 것이 사실. 그러나, 내용 자체는 섹슈얼리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기보다 여성 '미망인'으로 홀로된 중년 여성 10명을 심층인터뷰하여 이들이 다시 '애인'을 어떻게 만나고 그 과정에 어떻게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년 여성의 새로운 데이트와 연애' 정도의 제목이 어떨지? 기대보다 다소 실망스럽긴 하지만, 한국 중년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다루고자 하는 '시도'에 의미를 둘 수 있겠다. '섹스'와 '건강'에 대한 열린 토론과 연구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 (글_문현아)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SAMHSA),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CSAP), *Top Health Issues for LGBT Populations Information & Resource Kit, 2012.*

미국 보건사회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합동 제작하여 내놓은 '성소수자의 건강의 제와 정보&자료' 보고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의 정체성별로 최근 연구를 기반으로 건강의제를 정리해두어 읽기 쉽게 되어있다. 성소수자 건강 문제에 관심있는 임상 의사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성소수자 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과 연구를 인터넷에서 찾아볼만한 자료와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어, 성소수자 건강에 관심있는 연구자라면 성소수자 권익단체, 연구단체, 자료원을 모두 섭렵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글_박주영)<젠더건강>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 〈자, 이제 댄스타임〉 기획상영회 & 토크쇼

일시 | 2014년 7월 24일 오후 4시
장소 |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토크 | 진행시간 상영 후 1시간

* 상영회

영화〈자, 이제 댄스타임〉 소문은 들어보셨죠? 낙태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이 영화,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분들 광화문으로 GO GO!

* 토크쇼

“10대부터 50대까지, 여성들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섹스, 피임, 임신출산 세대 토크!”

영화를 보고나서 쏟아져 나오는 마음속의 이야기를 함께 해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게스트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수다 한판 같이 합시다!

(건강과대안 젠더와건강팀은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